미래사회
Journal of Future Society
2024. Vol. 15, No. 2, 145~161.

초기 청소년의 부모요인과 스마트폰과의존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오 혜 주* **이 은 경****

명지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청소년의 부모요인(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부모와의 대화시간)과 스마트폰과의존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기(KCYPS(2018)) 데이터 중 초등학생 3차(6학년) 2,364명의 데이터(남학생 1,187명, 여학생 1,177명)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스마트폰과의존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둘째,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과 스마트폰의존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부모와의 대화시간과 스마트폰과의존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즉, 초기 청소년기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녀와 함께 하는 양적 시간의 증가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스마트폰과의존을 예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사용습관을 지도하고 자녀의 자기조절력을 키울 수 있는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초기 청소년기 부모교육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초기 청소년, 긍정적 양육태도,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부모와의 대화시간, 자아존중감, 스마트폰과의존

* 주저자: 오혜주/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박사과정/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E-mail: 320na@hanmail.net
** 교신저자: 이은경/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Tel: 02-300-0624/E-mail: eklea@mju.ac.kr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청소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Dgital native)라 불리는데 이는 디지털 환경이 그들의 성장 과정 동안 제공되어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하는 세대를 말한다(Prensky, 2001). 그만큼 디지털 기기의 사용에 친숙하며 익숙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사용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의존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급격한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일으키는 청소년기는 스마트폰과의존에 취약한 시기로 알려져 있다(이주실, 2023). 최근 전체 연령의 스마트폰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감소하였지만 청소년의 스마트폰과의존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였고 유·아동과 성인에 비해 13~1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더욱이 청소년 스마트폰과의존은 저연령화되고 있으며 특히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과의존 현상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3). 2022년 스마트폰과의존 실태조사에서 스마트폰과의존에 가장 취약한(고위험군) 집단은 중학생(5.8%)이었지만 초등학생의 고위험집단 또한 5.1%로 고등학생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 환경, 특히 부모는 자녀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성격과 정서, 태도 등이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송한라, 박정윤, 2023). 그중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긍정적일수록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필요한 합리적 설명과 애정을 보이며, 자녀에게 일관성있는 감독의 형태로 책임과 의무를 제시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김미경, 2018). 그리고 자녀의 스마트폰과의존과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태도 외에 부모와의 관계,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와의 애착 등(문두식, 최은실, 2015; 박보경, 유설희, 2023; 여종일, 2015; 최선우, 김승현, 2015)이 영향을 미친다. 이외에 스마트폰사용과 관련된 습관과 같은 행동 지도에서 있어서 부모-자녀 관계의 실질적인 대화시간이나 함께하는 시간의 양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녀의 스마트폰사용습관과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태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실질적인 행동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모-자녀 관계에서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고 하나 어느 정도의 양이 전제가 되어야 질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듯 부모와의 대화시간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녀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임신일, 김은영, 2022).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의 질적 측면 향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함께하는 시간의 양적인 측면이 필요하다(고은주, 전승봉, 2022).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와 함께 하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간을 통해 부모는 부모역할에 대한 효능감을 얻을 수 있다(황지수, 2022). 그리고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적 활동은 긍정적 영향(Fiorini & Keane, 2014)을 미치며 또한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은 건강한 발달을 가능하게 한다(차은호, 유조안, 2020). 더불어 부모는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자녀의 생활에 많은 관심과 정보를 가지고 적절하게 개입하는 것은 부모-자녀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장병삼, 2010).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 스마트폰과의존과 관련하여 부모와 함께 하는 양적인 시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으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같은 질적인 측면과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과 부모와의 대화하는 시간 등 양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스스로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정익중, 2007).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게 되는 개념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부모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어주형, 김형빈, 이난희, 2019). 자아존중감은 행동이나 정서적 특성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발달적인 산물로 이해된다(Mason, 2001).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자아통제를 위한 중요한 심리적 자원으로 스마트폰과의존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인이다(이응택, 오승근, 2021).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요인과 스마트폰과의존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김소연 노충래, 이지현, 2024; 어주영 외,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초기 청소년의 부모요인과 스마트폰과의존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가정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관계, 부모 의사소통의 질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질적인 측면과 더불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과 부모와의 대화시간이라는 양적인 측면을 함께 확인하여 각각의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마트폰과의존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지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과 스마트폰과의존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지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와의 대화시간과 스마트폰과의존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지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스마트폰 과의존

최근 청소년 문제 중 하나로 스마트폰과의존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두드러지고 있다(여성가족부, 2023). 스마트폰과의존은 스마트폰 사용의 역기능적 의미로서 스마트폰에 과도한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고 조절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며 내성 그리고 금단현상을 포함한 개념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22). 김동일 외(2012)는 스마트폰과의존을 일상생활에 장애와 금단 및 내성을 경험하고 가상세계에 대한 높은 지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정의하며 기존의 스마트폰중독과 유사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렇듯 스마트폰과의존과 관련된 용어는 스마트폰중독, 스마트폰 문제적 사용, 스마트폰 과다사용 등 다양한 용어들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의미와 특정은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에 중독이라는 잣대로 논의될 경우 스마트폰 사용의 긍정적인 부분인 놀이와 여가 형태의 사용마저도 중독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스마트폰 사용 자체를 병리적인 문제로 여겨 부정적인 측면으로 간주 될 수 있다(안재경, 2023; 임정아, 2020). 그러므로 본 연구는 스마트폰의 긍정적 측면은 수용하고 부정적 결과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스마트폰과의존이라는 개념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문화는 긍정적인 측면(Ling & Yttriing, 2002)도 있으나 스마트폰과다사용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스마트폰과의존은 청소년기 발달(김유미, 임동호, 2016) 및 정서적 문제(최홍일, 정현주, 2023; 황희진, 홍정순, 2019), 그리고 비행 및 범죄와 같은 행동문제(이준형, 최응렬, 2020)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기

스마트폰과의존은 수면시간과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 증상을 야기시키고(이성식, 강은영, 최수형, 2015; 정은혜, 이소연, 2017; Tonioni et al, 2012),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및 충동성 등 ADHD 증상을 악화시킨다(최진오, 2014). 그리고 심리적인 증상 이외 사이버 비행과도 관련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이준형, 최응렬, 2020). 또한 게임중독보다 스마트폰과의존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청소년기 흡연, 음주, 성관계와 가출시도 등 비행경험의 가능성이 더 높으며(조정윤, 황의갑, 2020), 또한 초등학생의 스마트폰과의존은 학교폭력 가해행동이나 사이버불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진오, 2019). 이렇듯 청소년기 스마트폰과의존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의존의 저연령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다.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 연구에서 스마트폰과의존 증가집단과 감소집단 중 증가집단의 비율이 높다(이경은, 염동문, 2018).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스마트폰과의존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초기(초등학교 5학년)에 스마트폰과의존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임선아, 권미나, 2016). 즉, 스마트폰과의존에 빨리 노출될수록 스마트폰과의존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낮아지고, 시간이 경과될수록 스마트폰과의존은 오히려 증가되고 문제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과의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함께 하는 시간, 대화시간과 스마트폰과의존의 관계

성장 중인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과의존을 살펴보고자 할 때,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많은 영향을 주는 변인은 부모이다(문두식, 최은실, 2015). 그중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스마트폰과의존을 설명하는 요인 중 하나이며, 자녀의 스마트폰과의존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그리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긍정적일수록 또래와의 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의존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김유진, 조규판, 2016).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청소년의 우울이 심해지고(조승희, 조안나, 2021),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일수록 스마트폰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김미옥, 이응택, 2023; 임수호, 2021) 연구결과는 초기 청소년에게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양적인 시간 역시 자녀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스마트폰과의존은 감소하는 것으로 밝혔다(배구택, 김보령, 2023; 임신일, 김은영, 2022). 그리고 가족 여가활동과 가족 의례경험이 증가할수록 스마트폰 사용량이 감소하고 스마트폰과의존을 예방하는데 영향을 미친다(한효정, 장영은, 2020). 그러므로 부모와 함께하고 대화하는 양적인 시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인 질적인 측면과 더불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과 대화하는 시간의 양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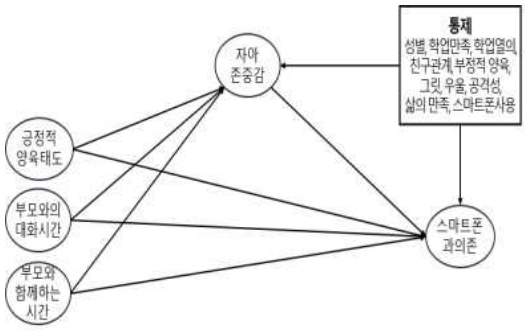
3)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부모요인은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부모요인과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과의존간의 직접적 관계뿐만 아니라 이 두 변인을 매개하는 변인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모요인과 스마트폰과의존의 관계를 심리적 요인에 기반하여 제시하고 있다. 부모요인과 스마트폰과의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매개변인으로 제시한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통제력(김영미, 2015; 진은희, 이경순, 2017), 충동성(여종일, 2015), 또래관계(김유진, 조규판, 2016), 스마트폰

사용동기(권현욱, 임영진, 2017), 우울 및 불안(김대명, 조준수, 2015; 박영숙, 2021), 사회적 위축(박영숙, 유주영, 2022), 회복탄력성(이희정, 장은비, 2020)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요인과 스마트폰과의존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그 까닭은 부모의 긍정적인 기능이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발달에 효과적이고, 이러한 심리적 자원이 문제행동의 보호요인으로 설명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 부모요인과 스마트폰과의존의 관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요인이기도 하다(문두식, 최은실, 2015; 최선우, 김승현, 2015).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원인이면서 사회적 행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발달적인 산물이다(Mason, 2001). 긍정적인 자아형성과 발달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에서 지지와 수용 경험이 필요하고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은 자신의 행동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게 된다. 청소년기는 부모의 관계가 중요한 시기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김미경, 2018; Coopersmith, 1967), 건강하게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스마트폰과의존을 예방하는 요인이 된다(이응택, 오승근,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 부모요인을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뿐만 아니라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과 대화시간이 스마트폰과의존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각각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부모요인이 자아존중감과 스마트폰과의존에 미치는 순수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자아존중감과 스마트폰과의존에 미치는 요인을 통제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서원석, 장재혁, 김석우, 2020; 정익중, 2007; 조윤영, 2023; 주영하, 정익중, 김영일, 2019; 홍예지, 2020)와 스마트폰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검증한 연구들(권미나, 이진숙, 2022; 장정수, 양지웅, 2023; 정준수, 이혜경, 2020; 최인경, 최진아, 김선희, 2023)에 근거하여 통제변인을 선정하였다. 개인적 요인은 성별, 그릿, 우울, 공격성, 삶의 만족,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투입하였고, 학업요인은 학업만족과 학업열의, 환경적 요인으로는 친구관계와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선정하였다. 세부적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을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2018년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을 모집단으로 다단층화집락표집 방식으로 대상자를 추출하여 반복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인 초등학교 패널자료 중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해당하는 3차년도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3차년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2,411명이었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대상을 제외한 2,364명을 선정하였다. 성별은 여학생 1,187명(50.2%), 남학생은 1,177명(49.8)이었다.

2. 측정도구

1)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척도는 김태명과 이은주

(2017)가 개발한 척도의 따스함 4문항, 거부 4문항, 자율성지지 4문항, 강요 4문항, 구조제공 4문항, 비일관성 4문항으로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을 합산(총 12문항)하여 긍정적 양육태도로 정의하였다. 점수구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으면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따스함 .882, 자율성지지 .842, 구조제공 .701로 나타났다.

2)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은 평일에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과 분 그리고 주말에 함께 하는 시간과 분으로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평일과 주말에 부모와 함께 함께하는 시간을 합산하였고, 합산 후 등간척도로 재구성하였다. 점수구성은 '3시간 미만' 1점, '3시간~5시간 미만' 2점, '5시간~7시간 미만' 3점, '7시간~9시간 미만' 4점, '9시간 이상' 5점으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으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두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46로 나타났다.

3) 부모와의 대화시간

부모와의 대화시간은 평일 대화시간 그리고 주말 대화시간 총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평일과 주말의 부모와의 대화시간을 합산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구성은 '전혀 안함' 0점, '30분 미만' 1점, '30분~1시간 미만' 2점, '1시간~2시간 미만' 3점, '2시간~3시간 미만' 4점, '3시간~4시간 미만' 5점, '4시간 이상' 6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많은 것을 의미하고, 두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2로 확인되었다.

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2010)가 사용한 문항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에서 수정·보완한 문항이다. 자아존중감은 총 10개 문항으로 5문항은 긍정적 자아 그리고 5문항은 부정적 자아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은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 척도는 단일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문항꾸러미로 측정변인을 3개로 구성하였고, 문항꾸러미는 요인부하량의 크기에 따라 할당하였으나 8번 문항의 신뢰도 계수가 낮아 이 문항은 삭제하였다. 측정변인으로 사용한 자아존중감 1은 2번, 3번, 5번 문항, 자아존중감 2는 1번, 6번, 10번 문항, 자아존중감 3은 4번, 7번, 9번 문항이었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자아존중감 1은 .690, 자아존중감 2는 .645, 자아존중감 3은 .616으로 확인되었다.

5) 스마트폰과의존

스마트폰과의존 척도는 김동일 외(2012)가 개발한 척도이며 일상생활장애 5문항, 가상세계지향 2문항, 금단현상 4문항, 내성 4문항으로 4개 하위요인과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구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으면 스마트폰과의존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 중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하고 있는 일(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3개 문항은 역코딩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일상생활 장애 .721, 가상세계지향 .767, 금단현상 .739, 내성 .768로 나타났다.

6) 통제변인

통제변인은 성별, 학업만족도, 학업열의, 친구관계, 부정적양육태도, 그릿, 우울, 삶의만족, 스마트폰 사용빈도이다. 성별은 여학생=0, 남학생=1로 더미처리하였고, 학업만족도는 1문항으로 '지난 학기의 성적 만족을 묻는 문항으로 '매우 불만족' 1점에서 '매우 만족'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학업열의는 16문항을 합산하였고, 친구관계는 긍정적 친구관계 8문항을 사용하였다. 부정적 양육태도는 부정적 양육에 해당하는 12문항, 그릿은 8문항, 우울은 10문항, 공격성은 6문항, 삶의 만족은 5문항, 스마트폰 사용빈도는 SNS 사용빈도, 게임 사용빈도, TV 및 동영상 시청빈도에 해당하는 3문항을 활용하였다. 각각의 점수구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으면 각 변인의 의미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3.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SPSS 26.0 통계프로그램과 MPLUS 7.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각 변인의 빈도와 평균(표준편차)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잘 설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경로분석 및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은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ML)을 적용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는 χ^2, TLI, CFI, RMSEA를 통해 확인하였다. TLI, CFI의 지수는 .90이상, RMSEA는 .05이하이면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홍세희, 2000) 이 기준에 따라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확인한 주요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 <표 1>과 같다. 긍정적 양육태도의 평균은 3.238(*SD*=.427),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은 평균은 3.155(*SD*=1.353), 부모와의 대화시간 평균은 4.249(*SD*=1.478)로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3.000(*SD*=.460), 스마트폰과의존의 평균은 2.121(*SD*=.537)로 확인되었다.

<표 1> 기술통계분석

구분	N	M	SD	왜도	첨도
긍정양육태도	2364	3.238	.427	-.262	.140
따스함	2364	3.337	.561	-.703	.984
자율성지지	2364	3.294	.534	-.506	.704
구조제공	2364	3.082	.472	-.321	1.579
부모와 함께시간	2363	3.155	1.353	-.248	-1.221
평일시간	2362	2.653	1.384	.407	-1.037
주말시간	2356	3.656	1.520	-.626	-1.164
부모와 대화시간	2364	4.249	1.478	.296	-.817
평일대화시간	2364	3.934	1.502	.532	-.510
주말대화시간	2364	4.563	1.567	.108	-.978
자아존중감	2364	3.000	.460	-.202	.307
자존감1	2364	3.011	.606	-.197	-.308
자존감2	2364	3.147	.531	-.429	.624
자존감3	2364	3.127	.527	-.238	-.026
스마트폰과의존	2364	2.121	.537	.079	-.573
일상생활장애	2364	2.234	.588	-.007	-.284
가상세계지향	2364	1.805	.764	.705	-.312
금단현상	2364	1.928	.633	.181	-.708
내성	2364	2.331	.666	-.010	-.446

2. 상관관계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2>, 긍

정적 양육태도 그리고 하위요인과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및 대화시간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다(r=.13~.50, p<.001). 부모요인과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r=.19~.50, p<.001)이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요인과 스마트폰과의존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r=-.12~-.40, p<.001)이, 자아존중감과 스마트폰과의존 역시 유의미한 부적상관(r= -.28~-.45, p<.001)이 확인되었다.

<표 2>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1	1-1	1-2	1-3	2	2-1	2-2	3	3-1	3-2	4	4-1	4-2	4-3	5	5-1	5-2	5-3
1-1	.843***	1																
1-2	.865***	.627***	1															
1-3	.736***	.391***	.472***	1														
2	.282***	.267***	.224***	.195***	1													
2-1	.267***	.256***	.213***	.180***	.962***	1												
2-2	.277***	.259***	.219***	.197***	.965***	.855***	1											
3	.251***	.242***	.219***	.147***	.420***	.431***	.380***	1										
3-1	.218***	.201***	.188***	.140***	.373***	.403***	.317***	.925***	1									
3-2	.247***	.246***	.217***	.134***	.409***	.401***	.388***	.938***	.736***	1								
4	.482***	.419***	.423***	.332***	.288***	.274***	.281***	.284***	.237***	.289***	1							
4-1	.441***	.381***	.383***	.311***	.253***	.238***	.250***	.236***	.196***	.240***	.901***	1						
4-2	.455***	.391***	.399***	.320***	.236***	.219***	.236***	.229***	.190***	.234***	.882***	.719***	1					
4-3	.451***	.386***	.390***	.323***	.297***	.290***	.282***	.302***	.249***	.310***	.866***	.692***	.698***	1				
5	-.318***	-.277***	-.306***	-.188***	-.302***	-.297***	-.285***	-.303***	-.251***	-.310***	-.433***	-.393***	-.398***	-.394***	1			
5-1	-.239***	-.220***	-.234***	-.123***	-.233***	-.234***	-.215***	-.200***	-.162***	-.208***	-.347***	-.313***	-.294***	-.311***	.868**	1		
5-2	-.286***	-.258***	-.271***	-.165***	-.317***	-.314***	-.296***	-.377***	-.309***	-.389***	-.405***	-.398***	-.394***	-.379**	.783***	.556***	1	
5-3	-.306***	-.270***	-.297***	-.173***	-.272***	-.269***	-.256***	-.374***	-.314***	-.379***	-.391***	-.340***	-.332***	-.387***	.833***	.569***	.736***	1
5-4	-.243***	-.190***	-.229***	-.175***	-.217***	-.206***	-.212***	-.123***	-.104***	-.124***	-.324***	-.310***	-.282***	-.263***	.826***	.663***	.481***	.519***

*p<.05, **p<.01, ***p<.001

1: 긍정적 양육태도, 1-1: 따스함, 1-2: 자율성지지, 1-3: 구조제공,
2. 부모대화시간 2-1: 평일 대화시간, 2-2: 주말 대화시간,
3: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3-1: 평일 시간, 3-2: 주말 시간,
4: 자아존중감, 4-1: 자아존중감1, 4-2: 자아존중감2, 4-3: 자아존중감3,
5: 스마트폰과의존, 5-1: 일상생활장애, 5-2: 가상세계지향, 5-3: 금단현상, 5-4: 내성

3. 연구모형 검증

각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종속변인의 하위요인 중 일상생활장애와 내성의 수정지수(M.I)가 높게 나타나 두 측정변인에 오차공분산을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χ^2값은 443.189(df=66,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χ^2 값은 표본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지수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CFI와 TLI 지수는 각 .978과 .970으로 나타나 .90이상, RMSEA값은 .049로 .05보다 작은 수치로 확인되어 종합적으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잠재변인의 요인부하량을 살펴본 결과, 긍정적 양육태도의 요인부하량(표준화 계수)은 .559~.820으로 확인되었고, 부모와의 대화시간은 .899~.951,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은 .805~.914, 자아존중감은 .830~.845, 스마트폰과의존은 .580~.866으로 나타나 각 측정변인은 잠재변인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모형을 분석하였고, 연구모형 분석에서는 통제변인을 투입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χ^2 값은 1253.019(df=156, 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CFI와 TLI 지수가 각 .950, .926으로 .90 이상이었고, RMSEA값은 .055로 .08보다 작은 수치로 확인되어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요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와 부모요인과 자아존중감이 스마트폰과의존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회귀계수

경로		종속: 자아존중감				종속: 스마트폰과의존			
		B	S.E	β	t	B	S.E	β	t
통제	성별	.028	.014	.028	2.045*	.020	.014	.025	1.431
	학업만족도	.032	.009	.057	3.687***	-.063	.009	-.146	-7.193***
	학업열의	.022	.019	.022	1.119	-.022	.017	-.028	-1.284
	친구관계	.066	.019	.064	3.503***	-.030	.018	-.037	-1.673
	부정적 양육태도	-.008	.020	-.009	-.421	.178	.018	.257	10.115***
	그릿	.157	.025	.128	6.316***	-.117	.023	-.123	-5.114***
	우울	-.381	.021	-.472	-18.563***	-.020	.022	-.032	-.924
	공격성	.028	.018	.035	1.571	.098	.017	.157	5.835***
	삶의 만족	.264	.021	.274	12.784***	.038	.019	.051	2.066*
	스마트폰 사용빈도	-.010	.010	-.014	-.942	.106	.011	.186	9.936***
긍정적 양육태도		.163	.033	.138	4.876***	.017	.031	.019	.560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046	.008	.101	5.695***	-.078	.009	-.220	-8.807***
부모와의 대화시간		-.007	.006	-.020	-1.080	-.011	.006	-.040	-1.783
자아존중감						-.093	.033	-.119	-2.835**

*$p<.05$, **$p<.01$, ***$p<.001$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모와의 대화시간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모요인과 자아존중감이 스마트폰과의존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모와의 대화시간은 스마트폰과의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은 스마트폰과의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스마트폰과의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스트랩핑(1,000)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긍정적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스마트폰과의존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과 스마트폰과의존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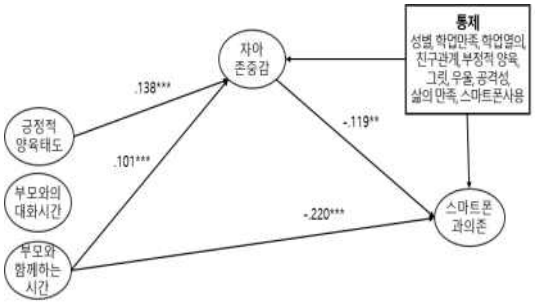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스마트폰과의존에 미치는 효과는 간접효과보다 직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스마트폰과의존에 미치는 효과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스마트폰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스마트폰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4>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간접 (β)	Bootstrap(95%)	
		Lower	Upper
긍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 스마트폰과의존	-.016*	-.030	-.003
부모와의 대화시간 → 자아존중감→ 스마트폰과의존	.002	-.002	.007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 자아존중감→ 스마트폰과의존	-.012*	-.021	-.003

*$p<.05$, **$p<.01$, ***$p<.001$



[그림 2] 연구결과

Ⅳ. 논의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부모요인(긍정적 양육태도,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부모와의 대화시간)과 스마트폰과의존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스마트폰과의존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스마트폰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일부 연구(문두식, 최은실, 2015)와 같은 결과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부분매개하여 스마트폰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문호경, 2020)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요인 중 긍정적 양육태도가 직접적으로 스마트폰과의존을 예방하기 보다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거나 적응의 수준을 높여 실질적인 부모의 영향을 제공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즉, 청소년기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을 주며, 자녀의 심리적 자원이 되는 자아존중감이 스마트폰과의존을 예방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과 스마트폰과의존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가족 여가활동과 가족 의례경험을 많이 할수록 스마트폰 사용량이 감소함으로써 스마트폰과의존을 예방한다고 설명한 선행연구(한효정, 장영은, 2020)와 일치한다. 즉,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이러한 시간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되고, 스마트폰과의존 예방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2022년 스마트폰과의존 실태조사에 의하면 맞벌이 가정 청소년의 위험군은 42.3%로 외벌이 가정 청소년보다 약 5% 이상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맞벌이 가정이 외벌이 가정에 비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스마트폰 과의존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단순히 시간의 양의 증가만을 의

미하기보다는 이 시간 동안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지도과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한효정, 2018)에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와의 대화시간과 스마트폰과의존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대화시간은 자아존중감(유정균, 신동훈, 2020)과 스마트폰과의존(고은주, 정승봉 2022)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해석은 몇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선행연구들은 스마트폰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소희(2019)는 우울이나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스마트폰과다사용에 주요 원인이지만 다른 변인들이 단계적으로 투입되었을 때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다양한 변인이 투입되었을 때 발생되는 잡음효과가 제거됨으로써 영향력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개인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을 투입하였기 때문에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자아존중감과 스마트폰과의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둘째, 스마트폰과의존의 정도에 따라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갖는 의미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김병년, 고은정과 최홍일(2013)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전반적인 대상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스마트폰과의존 위험군 사용자에게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였고, 석말숙과 구용근(2016)은 부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스마트폰과의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모의 해결지향형 의사소통은 스마트폰과의존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스마트폰과의존의 심각성 그리고 부모와의 대화유형에 따라 연구결과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부모요인을 부모의 양육태도라는 질적인 측면과 더불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과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의 양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전의 선행연구들은 부모-자녀 관계라는 기능적인 관점에 초점을 두었으나 본 연구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적 요인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의 상호작용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스마트폰과의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스마트폰과의존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개입으로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활동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청소년기 스마트폰과의존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과 상담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볼 수 있다. 우선, 초기 청소년기 스마트폰과의존 예방을 위해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사용을 실질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교육을 통해 자녀의 행동 결과에 압박감과 부담감을 주는 것이 아닌 노력 과정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송한라, 박정윤, 2023)하게 되고,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자녀의 자기조절력을 키우고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청소년기관, 상담센터 등에서 자녀의 스마트폰 활용을 위해 초기 청소년이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성과 내적 동기를 지도할 수 있는 부모교육 혹은 부모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청소년 문화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객관적 사용지침이나 과의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도울 필요가 있다.

둘째, 실질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가족프로그램이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초기 청소년기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통제하려는 부모와 개인적 사용 의도가 강한 자녀 사이에 충돌은 흔한 일이기도 하다. 이런 스마트폰과의존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력과 부모자녀관계의 어려움으로 여러 기관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과의존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폰과의존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

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 대상의 개입에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양적으로 늘리기 위한 활동을 제공하여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일상을 공유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부모와 함께하는 여행, 부모와 맛집 탐방 등의 활동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과의존 예방을 위해 부모의 양육태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의 양적인 요소를 함께 확인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인과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 특성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패널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모요인과 스마트폰과의존의 관련성을 종단적으로 파악한다면 명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부모와의 대화시간과 스마트폰과의존의 관련성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두 변인의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하기보다는 대화시간의 기능과 스마트폰과의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를 고려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부모와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자녀의 스마트폰과의존 가능성을 낮추고(이미애, 민윤희, 장성화, 2015; 이은정, 어주경, 2015), 반대로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역기능적이고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자녀의 스마트폰과의존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였다(김재엽, 장대연, 황선익, 2018; 박경원, 김경신, 2015; 유평수, 2010).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대화시간 안에서의 의사소통 방법을 변인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고은주, 전승봉 (2022).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우울한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9(5), 109-1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2022년 스마트폰과의존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권미나, 이진숙 (2022).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 변화궤적에 미치는 영향: 학업무기력의 매개효과 및 성별 다집단 분석. 청소년학연구, 29(4), 165-185.

권현욱, 임영진 (2017). 초등학교 고학년생이 지각하는 부모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사용동기의 매개 효과. 청소년학연구, 24(9), 317-337.

김대명, 조준수 (2015).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 관계에서 불안과 우울의 매개효과. 교육종합연구, 13(2), 153-172.

김동일, 정여주, 이주영, 김명찬, 이윤희, 강은비, 금창민, 남지은 (2012). 성인용 간략형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3(2), 629-644.

김미경 (2018).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양육태도와 또래애착이 삶의 목표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0(3), 53-70.

김미옥, 이응택 (2023). 여자 청소년의 부모 학업성취압력, 학업스트레스,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의 종단적 관계. 미래사회, 14(1), 104-117.

김병년, 고은정, 최홍일 (2013).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중독위험군 분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4(3), 67-98.

김소연, 노충래, 이지현 (2024).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긍정적/부정적 부모양육태도, 스마트폰 의존

간의 종단적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적용. 청소년복지연구, 26(1), 101-131.

김영미 (201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스트레스 대처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9(1), 223-242.

김유미, 임동호 (2016). 스마트폰 중독이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복지상담교육연구, 5(1), 63-81.

김유진, 조규판 (2016). 고등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과몰입 간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8(1), 1-14.

김재엽, 장대연, 황선익 (2018). 청소년의 부모-자녀 간 부정적 의사소통이 스마트폰중독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3(3), 419-439.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Ⅰ. 서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태명, 이은주 (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313-333.

문두식, 최은실 (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10), 213-236.

문호경 (2020).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직렬이중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49, 25-43.

박경원, 김경신 (2014). 중학생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대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박보경, 유설희 (2023).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학령초기 아동의 스마트폰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가정과삶의질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박영숙 (2021). 부모 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우울의 매개효과. 교정복지연구, 74, 27-49.

박영숙, 유주영 (2022).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교정복지연구, 76, 121-145.

배구택, 김보령 (2023).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자녀 대화시간, 스마트폰 의존도, 부모의 양육태도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과문화, 5(2), 278-302.

서원석, 장재혁, 김석우 (2020).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에 대한 종단연구 :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교육문화연구, 26(2), 625-649.

석말숙, 구용근 (2016). 청소년의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8(1), 53-77.

송한라, 박정윤 (202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그릿의 관계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5(3). 69-88.

안재경(2023). 청소년 게임중독의 의료화 현상에 대한 연구. 미래사회, 14(2), 48-71.

어주형, 김형빈, 이난희 (2019).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이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매개효과-초등학생 고학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4), 211-228.

여성가족부 (2023).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

여종일 (2015). 가족관계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충동성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 7(1), 101-112.

유정균, 신동훈 (2020).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부모와의 대화가 미치는 영향: 다문화정체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3(3), 39-71.

유평수 (2010). 중학생의 학교 성적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양식과 휴대폰중독과의 관계 연구. 청소년학연구, 17(1), 33-51.
이경은, 염동문 (2018).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 변화유형분석과 유형별 특성비교 연구. 인문사회 21, 9(5), 971-982.
이미애, 민윤희, 장성화 (2015). 초등학교 고학년의 부모자녀의사소통, 또래관계와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 아동교육, 24(1), 247-262.
이성식, 강은영, 최수형 (2015).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9(2), 69-102.
이은정, 어주경 (2015). 고등학생이 지각한 스트레스, 충동성 및 부모의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23(1), 1-22.
이응택, 오승근 (2021). 청소년 체험활동과 스마트폰과의존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32(4), 35-63.
이주실 (2023).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2(3). 307-344.
이준형, 최응렬 (2020).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 부모·교사·또래 애착의 병렬적 다중매개효과 검증 -.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0(3), 23-40.
이희정, 장은비 (2020). 부모 및 교사애착이 청소년의 스마트폰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7(3), 53-75.
임선아, 권미나 (2016).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휴대전화의존의 종단적 매개효과. 아동보호연구, 1(2), 55-83.
임수호 (2021).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비일관적 양육태도의 조절 효과.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임신일, 김은영 (2022). 초등학생의 부모와의 대화시간, 스마트폰 의존 및 교사애착 간의 종단적 관계 연구. 한국아동교육학회, 31(2), 5-23.
임정아 (2020). 스마트폰 과의존 ADHD 아동을 위한 부모참여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정수, 양지웅 (2023). 부모-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 삶의 만족도가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의 적용.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2), 751-766.
정은혜, 이소연 (2017).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과 우울 증상의 관계에서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의 다중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8(3), 119-146.
정익중 (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8(3), 127-166.
정준수, 이혜경 (2020).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2(4), 211-2141.
정준수 (2022).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중독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4(3), 33-60.
조승희, 조안나 (2021). 부모의 스마트폰 의존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의 관계: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우울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4), 369-379.
조윤영 (2023). 다문화 청소년 국가정체성과 자아존중감 종단적 변화양상 및 영향요인 : 잠재전이분석을 적용하여.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8(2), 65-91.
조정윤, 황의갑 (2020). 스마트폰중독과 게임중독이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행의 매개효과. 한국경찰연구, 19(1), 297-328.
주소희 (2019). 개인요인, 부모요인, 또래요인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0(4), 1651-1662.
주영하, 정익중, 김영일 (2019). 한부모가족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청소년복지연구, 21(1), 135-164.

진은희, 이경순 (2017).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 간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3(4), 683-708.

차은호, 유조안 (2020).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 돌봄시간의 불평등. 한국가족복지학, 67(3), 5-33.

최선우, 김승현 (2015). 청소년의 부모와의 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2(3), 365-383.

최인경, 최진아, 김선희 (2023).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특성 및 환경 변인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지, 13, 67-85.

최진오 (2014).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이 ADHD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 서울, 인천, 경기지역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 청소년시설환경, 12(2), 19-28.

최진오 (2018). 초등학생의 가정문제가 스마트폰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 분노와 ADHD성향의 다중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6(3), 139-150.

최진오 (2019).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가해 및 사이버불링 피해, 가해의 구조적 관계: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 초등교육연구, 32(4), 53-78.

최홍일, 정현주 (2023). 스마트폰과의존이 청소년의 주의력 결핍에 미치는 영향 -수면의 질과 우울의 연속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72(1), 75-99.

한효정 (2018). 부모감독, 여가활동 및 가족의 의례경험이 초등학생 스마트폰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효정, 장영은 (2020). 가족여가 및 가족의례가 아동의 모바일 인터넷 사용시간과 스마트폰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5(2), 141-161.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홍예지 (2020).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 유형화와 영향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31(3), 251-275.

황지수 (2022).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 돌봄시간. 노동경제학회지. 45(3). 1-41.

황희진, 홍정순 (2019).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수준과 사용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의 차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8), 475-499.

Caplan, G. (1974). Support systems and community mental health: Lectures on concept development. Behavioral Publications. New York City, *Psychiatric Services, 25*(10), 682-683.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mpany.

Fiorini, Mario, and Keane, Michael P. (2014). Tthe Allocation of Children's Time Affects Cognitive and Noncognitive Develop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32*(4), 787-836.

Ling, R., & Yttriing, B.(2002). *Hyper-coordination via mobile phones in Norwa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on, W,A. (2001). Self-Esteem and Delinquency Revisited (Again): A Test of Kaplan's Self-Derogation Theory of Delinquency Using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83-102.

Prensky, M. (2001).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Part I. *On the Horizon, 9*(5), 1-6.

Tonioni, F., D'Alessandris, L., Lai,C., , Martinelli, D., Corvino, S., , Vasale M., Fanella, F., Aceto, P., & Bria, P.(2012). Internet addiction: hours spent online, behaviors and psychological symptoms. *Gen Hosp Psychiatry, 34*(1), 80-87.

투고일자: 2024. 4. 30.
심사일자: 2024. 5. 24.
게재확정일자: 2024. 5. 29.

미래사회
Journal of Future Society
2024. Vol. 15, No. 2, 145~161.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Factors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in Early Adolescence

Hyeju, Oh Eunkyoung, Lea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factors(positive parenting attitudes, time spent with parents and conversation time with parents)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in early adolescence. Data from the third wave(six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the second period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were used. A total of 2,364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with 1,187 male and 1,177 female students. The results show that first,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influenced smartphone overdependence by mediating self-esteem. Second, conversational time with parents did not affect self-esteem or smartphone dependence. Third, the time spent with parents had a direct effect on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a mediating effect on self-esteem. It was confirmed that having a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and spending quality time with children in early adolescence can improve self-esteem and prevent smartphone overdependence. This suggests that parental education is needed to guide early adolescents' smartphone usage habits and enhance children's self-regul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early adolescent parental education plans are discussed.

Keywords: Early adolescence,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Time spent with parents, Self-esteem, Smartphone overdependence